예 배 WORSHIP

August 25,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9:1-27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통일찬송가 34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윤 집사, 홍현근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마라나타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33:15-23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묵상에세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

얼마 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니 그곳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지 종업원이 한국어를 아는 척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일행을 보며 '빨리빨리'라고 말하면서 웃습니다. 아마 아직도 한국인이 그리 보이나 봅니다. 이 말을 좋게 보면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일을 하는 우리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너무 급하기만 한 성격으로 비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표만 주어져도 일단 열심히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 불이 들어오면 누구를 뒤쫓는 듯 재빨리 건넙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뛰다시피 오릅니다. 그렇게 급하게 건너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걸음걸이로 돌아가곤 합니다. 작은 목표가 주어지면 재빠르고 성실하게 임하지만 목표가 없어지면 동력을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살면서 때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직면한 문제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많은 일을 처리한 날의 뿌듯함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일이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하는 날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목사 (좋은목회연구소)

오늘의 찬양

주의 신을 내가 떠나 (Kelly Willard,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시편 139:7-14 에 기초한 이 곡은 Kelly Willard 가 "예수의 피 밖에 없네"와 같은 전통 찬송가로 부터 영감을 얻어 예배를 위한 찬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Willard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고백하는 이 곡의 가사를 통해

한 주간의 기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민감하게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묵상하게 하소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헌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

빌립보서 3장 1절

선 교 소 식

2019 년 7-8 월 코스타리카 소식

1. 제 2 회 도미니카 공화국 고아 및 결손 가정 청소년 캠프 (CATEES 2009)

7 월 15-19 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에 위치한 월드그레이스 미션센터에서 9 개국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고아들과 소외된 가난한 흑인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은혜롭게진행됐습니다. 주제는.하나님의 나라'였고, 50 명의 참가자 중 15 명은 '두께사'라는 쓰레기 마을의 이아티 빈민가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두교의 영향 속에 자란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한 밤중에도 기도해야 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자유와 치유가 임하는지 알게 되는 축복이 시간이었고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삶과 가정에도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코스타리카 대학 사역 / 도미니카 공화국 전도 여행

7 월 말이 후 개강이 되면서 TEC 공대의 새 학기 VIDA TEC 동아리 정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그룹 보강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또한 ULacit 대학 학생 그룹은 여전히 정기 모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역 교회 목회자 세미나

백석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유태화 교수를 초빙하여 7 월 29 일부터 2 주간 이곳산호세 현지 실로암 선교회와 연관된 작은 교회 목회자 20 여 분을 모시고 '삼위일체론과 성령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지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곳도 신학교육 없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참석자 너무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4. 중국인 생수교회 청년부 사역

이번 캠프에 자원봉사자롤 참석했던 청년부 5 명이 캠프 기간 동안 영적인 도전을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있고 이를 계기로 청년부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따띠와 딸리야 두 자매는 4 년 전 자살한 남동생으로 인해 지녔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가족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환타지 같다고 했던 그들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 캠프 자원봉사자와 참가자가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 ◆ 대학 사역의 성장 속에 대학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 ◆ 10 월 터키 선교사 대회 참가 길에 하게 되는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 역 / 행 사

8 월은 도약의 달 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는 삶을 누립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오늘 주일예배에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3.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4.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헌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5. **개학**: 여름방학을 마친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Youth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 교인 수련회

장소 : 교회 / 일정 : 9.1(일)-9.2(월) 준비를 위해 협조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생일 축하♥ 최성주(8/16) 김신실 (8/18) 정줄리 (8/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흥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18	8/25	9/1	9/8
	구 민 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금요예배기도	8/23	8/30	9/6	9/13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8//18	8/25	9/1	9/8
	홍현근집사/최선윤집사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 씀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 8:1-29

이스라엘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열매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됐다. 아간의 사건에서 비롯된 패배감, 두려움,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되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 혹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마음의 상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자책감, 열등감, 패배감, 깨어진 관계, 무엇이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오 놓자.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아뢰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때 하나님은 용서와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 여호수아 9:1-27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와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은?

기브온의 선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은?

기브온이 받은 축복은?

믿음의 기준으로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자!

말씀요약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 여호수아 9:1-27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어지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보편적인 선택으로 가나안의 여섯 왕들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각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연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선택은 자멸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선택은 이스라엘과의 화친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며 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과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여 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고 연합군을 만든 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조약을 맺었습니다. 곧 기브온의 거짓말은 들통 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댓가로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기브온의 후손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저주일까 질문해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구한데다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게 됐습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이 받은 벌이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기브온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August 25, 2019

치유, 회복,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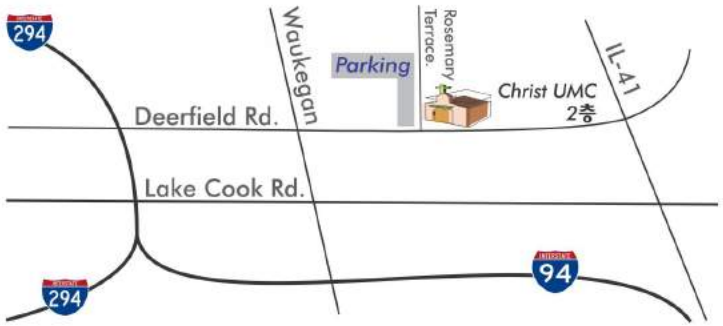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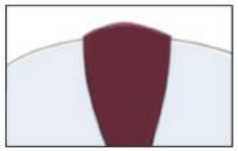
2019년 8월 25일 5-34호

도약의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사각지대(死角地帶)



언제부터 인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먹이지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호세아136